제1부 감정의 본질과 신앙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

# 1부 · 신앙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 적용

『신앙감정론』 제1부 3장 "신앙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 적용", 인쇄 180~188쪽

### 🧭 흐름 한눈에

앞 장에서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은 대부분 감정에 있다”는 명제를 증명했다. 이 장에서는 그 명제에서 세 가지 결론을 끌어낸다. 첫째, 대각성 운동 뒤 뜨거웠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모든 신앙감정을 버리려는 흐름은 큰 잘못이다. 그것은 사탄이 노리는 또 다른 극단이며, 올바른 길은 감정을 통째로 받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려내는' 것이다. 둘째, 감정이 신앙의 중심이라면 감정을 바르게 움직이는 설교·책·성례·기도·찬양을 힘써 구해야 한다. 셋째, 복음보다 더 감정을 쏟을 만한 대상은 없다. 그러니 복음 앞에서 무딘 우리 마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 결론은 곧바로 제2부, 곧 “어떤 감정이 진짜인지 판단할 수 없는 표지들”로 이어지는 다리가 된다.

### 🪪 표지 카드

(표지 장 아님)

## 📜 절별 정리

### 📜 1. 결론 하나: 감정을 통째로 버리는 오류 — 왜 이런 흐름이 생겼나

에드워즈는 먼저 “모든 신앙감정을 믿을 수 없고 실체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크게 특령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생각이 생긴 배경을 공정하게 짚는다. 최근의 열정

(inclination)은 마음이 기울어 끌리는 방향을 말한다. 그들은 열정에 휩싸여 있을 때 여러 오류에 빠졌다. 높이 치솟던 감정은 금방 사라졌고, 기쁨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얼마 안 가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듯” 옛 삶으로 돌아갔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참된 믿음은 감정과 상관없다고 결론 내렸다. 에드워즈는 사람이 한 극단에서 반대 극단으로 쉽게 넘어간다고 진단한다. 불과 3, 4년 전에는 감정이 뜨거워 보이기만 하면 따져 보지도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반대로 모든 감정을 따져 보지도 않고 거부한다는 것이다.

1. 대각성 뒤 실망이 감정 불신을 낳았다
2. 뜨겁던 사람들이 옛 삶으로 돌아갔다
3. 3, 4년 전: 감정을 무조건 칭찬했다
4. 지금: 감정을 무조건 거부한다
5. 두 극단 모두 '살펴보지 않음'이 문제다

> **베드로후서 2:22**
>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의 출처. 반짝 뜨거웠다가 옛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모습이다(본문은 장절 없이 표현만 빌려 씀)
>
>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 **잠언 26:11**
> 같은 비유의 구약 원형.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모습이다(암시)
>
>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 📜 2. 사탄의 두 단계 술수: 가라지를 섞고, 다음엔 알곡까지 버리게 한다

에드워즈는 이 진자 운동 뒤에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있다고 본다. 첫 단계에서 사탄은 신앙감정이 크게 유행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참 감정과 가짜 감정을

이끌고, 결국 신앙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려 했다. 둘째 단계는 가짜 감정의 나쁜 열매가 드러났을 때 시작된다. 사탄은 방향을 바꾸어 “신앙에 관련된 감정은 모두 해롭고 피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퍼뜨렸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신앙을 생명 없는 형식으로 만들고 경건의 능력을 없애며 참된 기독교를 말살하는 길이다. 무조건 칭찬하는 극단과 무조건 거부하는 극단이 모두 같은 원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1. 1단계: 참 감정에 가짜 감정을 섞는다
2. 목적: 속여 멸망시키고 신앙을 욕되게 함
3. 2단계: 감정 전체를 해롭다고 몰아간다
4. 결과: 형식만 남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다
5. 두 극단 모두 사탄에게 이용된다

> **마태복음 13:25**
> 원수가 밤에 알곡 사이에 가라지를 뿌린다. 참 역사에 가짜를 섞는 사탄의 수법을 그리는 비유다(암시)
>
>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 **마태복음 13:29~30**
> 가라지 때문에 알곡까지 뽑지 말라는 말씀. 가짜 때문에 진짜까지 버리지 말라는 이 절의 논지와 맞닿는다(암시)
>
> 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 **디모데후서 3:5**
>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상태. 감정을 다 버린 신앙이 형식만 남는다는 경고와 같은 표현이다(암시)
>
>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 📜 3. 빛과 열: 감정 없는 참 신앙은 없다

여기서 에드워즈는 이 장의 신학적 중심을 놓는다. 참된 신앙에는 감정 말고도 있어야 할 것이 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대부분 감정 안에 있으므로, 감정이 없으면 참된 믿음도 없다. 신앙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고, 성령께서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구원의 역사를 받지 못한 상태다. 그는 이것을 '빛'과 '열'로 설명한다. 빛은 진리를 깨닫는 이해이고, 열은 마음의 뜨거운 감정이다. 빛 없이 열만 있으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다. 머리는 개념과 사변으로 가득한데 마음은 차가운 '열 없는 빛'에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없다. 그런 지식은 참된 영적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을 자주 듣고 읽으면서도 감동이 없다면 그 이유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정말 보았다면 감동하지 않는 것은 인간 본성상 불가능하다.

1. 감정 없는 곳에 참된 믿음은 없다
2. 빛 없는 열은 하늘에 속하지 않는다
3. 열 없는 빛도 참 영적 지식이 아니다
4. 바르게 보면 마음은 반드시 움직인다
5. 무감동의 원인은 영적 눈멂이다

> **고린도후서 4:4**
>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위대한 진리 앞에서 무감동한 이유가 '영적 눈멂'이라는 진단과 맞닿는다(연결 구절, 본문 직접 인용 아님)
>
>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 **에베소서 2:1**
>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신앙감정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표현의 배경이다(연결 구절)

“신앙감정이 없는 곳에 참된 믿음은 없다.”

## 📜 4. 감정을 깎아내린 열매, 그리고 바른 길: 가려내라

에드워즈는 감정을 통째로 낮추는 태도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열거한다. 그런 태도는 마음을 극도로 굳게 하고 사람을 어리석고 무감각하게 만든다. 살아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두고, 끝내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끈다. 실제로 당시 퍼진 편견은 죄인의 마음을 더 강퍅하게 했다. 강퍅함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굳은 상태를 말한다. 그 편견은 성도들의 은혜를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을 일깨우는 효과를 막았다. 하나님이 최근 이루신 특별한 역사를 하찮게 여기게 만들기도 했다. 남의 고상한 감정을 비웃는 사람에게는 그런 감정이 있을 리 없고, 스스로 감정이 없으면서 남을 경멸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에드워즈는 균형을 분명히 한다. 감정이 풍부하다고 참 신앙이 증명되지는 않지만, 감정이 없다는 것은 참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그래서 바른 길은 전부 받아들이는 것도 전부 버리는 것도 아니다. 밀과 겨, 금과 찌끼,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나누듯 감정을 가려내는 것이다.

1. 감정 경시는 마음을 굳게 만든다
2. 성도의 은혜와 말씀의 효과를 약화시킨다
3. 풍부한 감정 ≠ 참 신앙의 증거
4. 감정의 부재 = 참 믿음 없음의 증거
5. 해법은 전부 수용도 거부도 아닌 '분별'이다

> **예레미야 23:28**
>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밀과 겨를 나누라는 비유의 배경이다(암시)
>
>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 **예레미야 15:19**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잠언 25:4**

은에서 찌끼를 제하라. 금과 이물질을 분리하는 정련의 이미지다(암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마태복음 3:12**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 최종 분별은 하나님께 속하지만 우리도 분별을 배워야 한다는 배경이다(연결 구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히브리서 3:13**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감정 경시가 마음을 강퍅하게 한다는 경고와 맞닿는다(연결 구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 📜 5. 결론 둘: 감정을 바르게 움직이는 수단을 힘써 구하라

참된 신앙이 대부분 감정에 있다면, 감정을 일깨우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에드워즈가 꼽는 수단은 책, 설교, 성례 집행, 기도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것들을 은혜의 방편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정하신 통로라는 뜻이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런 방편이 마음을 깊이 움직이는 것을 탁월하고 유익하다고 환영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이 이상하게 바뀌어, 사람의 감정을

열기만 일으키고 영혼에는 참된 유익을 주지 못하는 수단도 있을 수 있다. 감정을 자극하더라도 은혜에서 나오거나 은혜로 향하는 감정을 일으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앙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참된 방식으로 쓰인다면, 은혜로운 감정을 많이 일으킬수록 더 좋은 방편이다.

1. 설교·책·성례·기도·찬양은 마음을 움직인다
2. 과거엔 환영, 지금은 '병적'이라 혐오한다
3. 열기만 남기는 수단도 있음을 인정한다
4. 기준: 진리 이해에서 나온 은혜로운 감정
5. 그런 감정을 더 일으킬수록 더 나은 수단이다

> **(본문에 직접 인용 없음)**
> 이 단락에서 에드워즈는 성경 구절을 들지 않는다. 앞 장에서 세운 “신앙은 대부분 감정에 있다”는 명제에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끌어낸다

### 📜 6. 결론 셋(가): 감정을 엉뚱한 곳에 쓰는 우리를 부끄러워하라

셋째 결론은 회개로의 부름이다. 신앙의 위대한 일들 앞에서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 원인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에드워즈는 감정의 목적부터 밝힌다. 하나님이 영혼의 다른 기능을 주신 목적과 똑같이, 감정도 사람의 본분, 곧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일에 쓰라고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속적 이익, 쾌락, 명예와 명성, 인간관계에는 마음이 쉽게 녹고 욕망이 타오른다. 세상의 실패에는 깊이 우울해지고 성공에는 크게 흥분한다. 그러면서 영원한 일에는 사랑이 냉랭하고 갈망이 미지근하며 감사가 부족하다. 특히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구하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신 사랑, 피 같은 땀과 통곡 속에서 드러난 어린 양의 사랑을 앉아서 듣고도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에 그는 놀란다. 문제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감정이 엉뚱한 곳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 복음 앞의 무감동은 적은 믿음의 증상이다

4. 문제는 감정 부족이 아니라 방향이다
5. 십자가의 사랑 앞 무관심이 가장 이상하다

**에베소서 3:18**

하나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너비”라는 표현의 출처. 이 사랑의 크기가 감정을 쏟을 이유가 된다(암시)

>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가복음 22:44**

땀이 핏방울같이 된 겟세마네의 기도. 어린 양의 사랑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보여 준다(암시)

>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7**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린 간구. “크고도 쓰라린 울부짖음”의 배경이다(암시)

>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요한복음 1:29**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으신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암시)

>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로마서 5:10**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화목하게 되었다. 지옥에 마땅한 '원수들'을 구원하신 사랑의 배경이다(암시)

>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감정을 적절히 사용할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 📜 7. 결론 셋(나): 복음은 감정을 쏟기에 가장 합당한 대상이다

에드워즈는 질문을 이어 간다. 창조주가 감정을 헛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면, 감정은 가장 합당한 대상을 향해 쓰여야 한다. 그리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복음에 제시된 것보다 찬탄과 사랑, 갈망과 소망, 기쁨과 열정을 쏟기에 합당한 대상은 없다. 그는 복음의 내용을 하나씩 짚는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그 영광은 성육신하시고 온유하며 죄인을 위해 죽으신 구속주의 얼굴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빛난다. 어린 양의 겸손, 인내, 온유, 순종, 사랑, 긍휼은 가장 큰 시련 속에서, 곧 마지막 고난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견디실 때 가장 밝게 드러났다. 또 우리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는 우리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들에게까지 죄를 엄중히 심판하셨고, 거기서 진노와 정의가 가장 감정을 흔드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은 구속의 모든 일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움직이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니 이 앞에서 무감동하다면 우리는 티끌처럼 낮아져야 마땅하다.

1. 감정은 합당한 대상을 향해야 한다
2. 복음보다 합당한 대상은 어디에도 없다
3. 하나님의 영광은 구속주 얼굴에서 빛난다
4. 십자가는 죄의 끔찍함과 진노를 보여 준다
5. 구속은 마음을 움직이도록 계획된 일이다

> **고린도후서 4:6**
>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영광이 구속주의 얼굴에서 가장 빛난다는 표현과 맞닿는다(연결 구절)
>
>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어린 양의 순종과 겸손이 최고도로 실천되었다는 근거다(연결 구절)

>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마서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에게까지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 준다(연결 구절)

>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사야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대신 받으신 고난에서 우리 죄의 결과를 본다는 논지와 맞닿는다(연결 구절)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대본 작가 참고: 이 장에서 에드워즈는 장절을 밝힌 인용 없이 성경 표현을 문장에 녹여 쓴다. 위 표의 '암시'는 그 표현의 출처이고, '연결 구절'은 논지를 보충하는 구절이다. 영상에서 “에드워즈가 이 구절을 인용했다”고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 ⚖️ 오해와 반론

## 📖 용어

**감정(affection)**

마음이 어떤 대상에 강하게 끌리거나 밀어내는 의지의 활발한 움직임이다. 사랑, 기쁨, 슬픔, 갈망 등을 가리키며 단순한 기분과는 다르다.

하나님과 영원한 일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다.

**성향(inclination)**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기울어진 방향이다.

**영적 대각성**
에드워즈 당시 이 땅(뉴잉글랜드)에 일어난 큰 부흥이다. 이 장은 그 뒤의 반동을 다룬다.

**빛과 열**
빛은 진리를 깨닫는 이해, 열은 그 진리에 반응하는 마음의 뜨거움이다. 참 신앙은 둘이 함께 있다.

**사변**
삶과 마음에 닿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도는 이론적 생각이다.

**은혜의 방편**
설교, 성례, 기도, 찬양, 경건 서적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정하신 통로다.

**은혜로운 감정**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고 은혜로 향하는 감정이다. 단순히 자극받은 흥분과 대비된다.

**강퍅함**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진 상태다.

**영적 눈멂**
신적인 일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실제로 보지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들어도 감동이 없다.

⚖️ **거짓과 참** ⌄

💬 **청년의 삶으로** ⌄

- 가짜 감정 때문에 모든 신앙감정을 버리는 것은 큰 오류이며, 사탄이 노리는 또 하나의 극단이다.
- 감정이 풍부하다고 참 신앙이 증명되지는 않지만, 감정이 없다면 참 믿음도 없다. 바른 길은 가려내는 것이다.
- 진리 이해에 근거해 은혜로운 감정을 일으키는 설교, 책, 성례, 기도와 찬양을 힘써 구해야 한다.
- 복음보다 감정을 쏟기에 합당한 대상은 없다. 그 앞에서 무딘 마음은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일이다.
- 이 결론이 제2부의 질문, 곧 “그렇다면 어떤 감정이 참된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없는가”를 연다.

###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4편 · 감정을 버리는 교회, 감정만 좇는 교회 · 1부 적용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